

부정문의 중의성 문제 재고

-작용역과 정보구조의 상호작용-

박 철 우 *

이 글에서는 부정문이 다중적 해석 양상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기존에는 양화사와 부정소 사이의 작용역 차이에 의한 구조적 중의성이 단형과 장형 부정문과 관련하여 동일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었고, 특정 성분에 초점 강세가 주어질 때 그 부분만이 부정의 작용역이 된다는 설명이 특정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제기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구조의 틀을 수용하여, 부정소의 작용역과 정보구조에 의한 초점의 작용역은 서로 분리되어야 하는 현상이라는 가정 속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부정의 작용역은, 부정소가 명제의 진위를 바꾸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명제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초점의 작용역은 하나의 성분으로부터 성분들의 조합 혹은 문장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맥락 상정과 함께 제시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은 소위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단형 부정문에 양화사나, 절이나 성분을 공히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의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적 해석에 대해서도 정보구조와 연관된 해석 가능성을 추가함으로써 설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고, 장형 부정문에 나타나는 ‘-지’와 ‘하다’의 기능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함께 엿볼 수 있었다.

핵심어: 부정문, 부정소, 중의성, 작용역, 정보구조, 초점, 전제, 장형 부정문, 단형 부정문

*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서론

변형문법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국어 부정문은, 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와 동일한 심층구조의 설정 가능성 문제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김동식 1990, 구종남 1990, 임홍빈 1998 등 참조).

(1) ㄱ. 학생이 왔다. (긍정문)

ㄴ. 학생이 안 왔다. (단형 부정문)

ㄷ. 학생이 오지 아니하였다. (장형 부정문)

(1ㄱ)과 (1ㄴ, ㄷ)의 의미 차이가 긍정 명제(p)와 부정 명제($\sim p$)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라면 (1ㄱ)의 의미 표상에 부정소(NEG)가 가미된 것이 (1ㄴ, ㄷ)의 심층구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논의의 초기에는 그러한 심층구조로부터 (1ㄴ, ㄷ)과 같은 표층구조가 생성될 수 있는 변형 규칙을 찾으면 부정문에 대한 통사적 연구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변형 과정에 대한 논의는 장형 부정문의 ‘-지’나 ‘하다’의 통사적 위상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에 부딪혔다.

또한 부정이라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대당 긍정 명제를 전제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같을 수 없고,¹⁾ 단순히 긍정 명제(p)에 부정($\sim$)이라는 함수자를 적용했다는 논리와 그러한 의미구조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통사구조를 상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다양한 의미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부정 논의를 한없는 미궁으로 몰아갔다.²⁾

1) 임홍빈(1973: 117)의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긍정과 부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정이란 것이 존재 즉 즉자의 세계에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것은 존재의 세계에 대한 인간적인 침윤(浸潤)으로 해석되며 의식의 대자적인 활동으로 이해된다. ...”

2) 즉 실제 사용에서, 긍정문과 부정문은 서로 다른 전달 의도 가운데 발화될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쟁점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양화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의미에 대한 직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직관이 다르니 분석이 달라질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2) ㄱ. 학생이 모두 안 왔다.

ㄴ. 학생이 모두 오지 아니했다.

(2ㄱ)과 (2ㄴ)의 의미구조를 논리식으로 나타내자면 각각에 대해 (3ㄱ)과 (3ㄴ)을 그 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

(3) ㄱ. ASSERT[$\forall x \sim [\text{학생}(x) \rightarrow \text{왔}(x)]$]

ㄴ. ASSERT[$\sim \forall x [\text{학생}(x) \rightarrow \text{왔}(x)]$]

(ASSERT: ‘단언’의 화행소; 시제는 분석하지 않음)³⁾

논저에 따라, (2ㄱ)(단형 부정문)에 대해서는 (3ㄱ)의 해석만 가능하고 (2ㄴ)(장형 부정문)에 대해서는 (3ㄱ, ㄴ)이 다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조준학 1975, 송석중 1977, 이익환 1979, 한학성 1987, 서진희 1990, 구중남 1990 등; 일부 임홍빈 1998에서 재인용), (2ㄱ)과 (2ㄴ)이 각각 (3ㄱ, ㄴ)의 해석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임홍빈 1973, 송석중 1981, 장경기 2010 등).⁴⁾

어느 편에 서든지 (2ㄱ)과 (2ㄴ)의 중의성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은

3) ‘ASSERT’는 화행 단위까지 분석하기 위한 연산자이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 이후로는 생략할 것이다.

4) (2ㄱ)과 (2ㄴ)이 각각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입장인 임홍빈(1973)이나 송석중(1981)에서도 (2ㄱ, ㄴ)이 똑같은 정도로 중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즉 이들은 모두 (2ㄱ)의 경우에는 (3ㄱ)이, (2ㄴ)의 경우에는 (3ㄴ)이 1차 해석이 되고, (2ㄱ)은 (3ㄴ)을, (2ㄴ)은 (3ㄱ)을 2차 해석으로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의 광혜영·이미선(2010)에서는, 이 모든 선행 연구의 직관과 달리,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성인이나 아동이나 모두 단형과 장형에 무관하게 (3ㄱ)과 같이 부정소가 좁은 작용역(양화사가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경우가 항상 선호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 명확하지 않다. 우선 (2ㄱ)에 대해, 그것이 단의적이라는 입장에서 ‘아니(안)’가 동사(‘오-’)만을 수식 범위로 하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모두’보다 넓은 해석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킬 것이고, 중의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가 부정소로서 동일 질 범위를 작용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2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중의적으로 보면서, ‘모두’가 ‘오-’를 먼저 수식하는 구조에서는 넓은 해석이 나오고 ‘(오지) 아니하다’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좁은 해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해법들이 그다지 말해 주는 것이 없는 것은, 결국 국어의 부정문들의 중의성이 그 표면구조에서 구별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줄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유의 예이다(임홍빈 1973: 120).

(4) 나는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ㄱ. 그를 권총으로 쏜 것은 내가 아니다.

ㄴ. 내가 권총으로 쏜 것은 그가 아니다.

ㄷ. 내가 그를 쏜 것은 권총으로가 아니다.

ㄹ. 내가 그에게 권총으로 한 것은 쏘는 것이 아니다.

(5) 나는 그를 권총으로 안 쏘았다.

(4)는 ‘나’, ‘그’, ‘권총’, ‘쏘-’와 같은 구성소에 운율적 타립-임홍빈(1973: 121)은 ‘강조’라 함--이 주어짐에 따라 (4ㄱ-ㄹ)과 같은 해석 가능성이 생긴다고 본다. 임홍빈(1973: 121-2)에서는 (4)가 이 네 가지 해석 외의 다른 해석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고, NEG는 (아마도 ‘심층구조’에서) (4)에 포함된 성분들 중 강조된 하나의 바로 앞에 놓이도록 하면 된다고 보았다. 이 네 가지 중의성도 (4)의 표면에서는 (운율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통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5)와 같은 단형 부정문에 대해서는, 임홍빈(1973: 123) 경우, 부정소 ‘안’이 오로지 동사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은 기저에서부터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려 한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표명은 그리 견고한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⁵⁾ 구종남(1990)은 임홍빈(1973)보다 더 명확하게 단형 부정문은 구성소 부정 이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종남(1991)에 가서는 (2-)이 (3-)과 같은 해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언어 내적 원리로는 불가능하지만 담화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서정수(2006: 963)는 구성소 부정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예로서 단형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어,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의 그러한 차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⁶⁾

이 글은 이상에서 제시한 부정문의 다양한 중의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최초에 심층 구조를 위해 가정되었던 논리적 의미 이상의 층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이기용 1979 참조). 그것은 정보구조의 층위이다. 정보구조는 이미 주제/화제, 전제, 초점 등의 논의에서 알려져 있듯이, 문장의 구조가 논리적 의미의 전달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도 구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정문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임홍빈 1987, 구종남

5) 그의 이러한 입장은 임홍빈(1973)을 앞에서 (2-)이 두 가지 해석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분류한 것과 상반돼 보이는데, 그는 두 가지 해석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제1 해석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기이하다. 그가 각주에서 밝힌 태도는 다음과 같다:

“... 이에 대해 우리는 단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안 먹었다’와 ‘먹지 않았다’를 동일한 부정으로 혼동하는 그만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어의 구문에서 뒤의 요소가 앞의 어떤 요소를 한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다.”

6) 서정수(2006: 963)의 예는 다음과 같다:

(i) 철수가 오늘 뒷마당에서 순희와 안 싸웠다.

그는 (i)에서 ‘철수’에 초점이 놓이면 ‘행위자가 그가 아님’을, ‘뒷마당에서’에 초점이 놓이면 ‘그 일이 거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1990 등), 아직 그러한 시각이 체계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시각으로 부정의 작용역 문제와 부정문의 정보구조를 세밀하게 살피고, 이러한 부정문의 구조적 차이들이 각각 독립적 기제이며 이것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의미 해석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2절에서 정보구조의 틀을 간략히 소개하고, 3절에서 정보구조와 부정의 상호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4절 결론에서는 논점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2. 정보구조

정보구조란, 문장 구조 내에는 순수한 통사·의미론적 요구(격 여과, 일치, 의미역 구조 등)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 이외에, 다른 필요에 의해 유발된 문법적 작용들이 있고, 그것은 예컨대, 화제화, 좌-분리 현상(left dislocation), 우-분리 현상, 생략, 분열문화 등 일견 비구조적인 동기를 가진 통사 작용들을 포함하는데, 그러한 차원을 통사적, 운율적, 형태적 수단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화의 근거는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그가 발화 상황 속에서 청자의 의식 속에 현저할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과 그 주어진 문맥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화자의 믿음이다. Valldevi(1990)은 이와 같은 의사전달적 동기에 의한 두 가지 정보구조를 통합하여 아래의 (6)과 같은 삼항 계층 분절을 제시하였고, 박철우(1998)은 이를 국어에 적용하였다.

(6) S={초점, 바탕}

바탕={연결, 꼬리}

(6)은 문장이 발화 상황에서 청자가 이미 알고 있어서 의식 속에 현

저한 부분, 즉 화용적으로 전제된 부분(바탕; ground)과 그에 상대하여 새로이 덧붙여지는 부분(초점; focus)으로 나뉘며, 그 중 바탕 부분은 다시 그 중에서도 청자의 지식 저장소 속의 분류 단위일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연결; link)과 그 단위에 종속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전제된 부분(꼬리; tail)이 대별됨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논의의 목적상 ‘바탕’과 ‘전제’를 구별하지 않고, ‘연결’과 ‘화제’를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정보구조는 현 발화의 화자에게 직전에 제공된 문맥을 가늠해 봄으로써 그 구조화를 예단할 수 있고 그것이 통사적, 운율적, 형태적 방법으로 현실화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가능한 문맥과 그에 대응하는 정보구조를 상정해 보자. (‘꼬리’는 화제를 제외한 바탕(전제)이므로 여기서는 ‘전제’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7)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

- ㄱ.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 (← 무슨 일인가?)
- ㄴ. [전제 내가][초점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 (← 네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 ㄷ. [전제 그를][초점 내가 권총으로 쏘았다] (← 그가 어떻게 됐는가? / 그를 누가 어떻게 했는가?)
- ㄹ. [전제 권총으로][초점 내가 그를 쏘았다] (← 권총으로 누가 무엇을 했는가?)
- ㅁ.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전제 쏘았다] (←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쏘았는가?)
- ㅂ. [초점 내가][전제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 (← 네가 그를 어떻게 했는가?)
- ㅅ. [전제 내가][초점 그를 권총으로][전제 쏘았다] (← 네가 누구를 무엇으로 쏘았는가?)
- ㅇ. [초점 내가 그를][전제 권총으로 쏘았다] (← 누가 누구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ㅈ. [전제 내가][초점 그를][전제 권총으로 쏘았다] (← 네가 누구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ㅊ. [전제 내가 그를][초점 권총으로][전제 쏘았다] (← 네가 그를 무엇으로 쏘았는가?)

ㅋ. [전제 내가 그를 권총으로][초점 쏘았다] (← 네가 그를 권총으로 어떻게 했는가?)

...

(7) [화제 그는(Ø)][초점 내가 권총으로 쏘았다] (← 그는 어떻게 됐는가?
/ 그를 누가 어떻게 했는가?)

(7)은 화제가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어.’라는 네 개의 성분을 가진 문장을 전제와 초점으로 분절할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이다. (7)에서 명확히 표상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정보구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식적인 표현 수단을 가진다.

(8) ㄱ. 어순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전제된 성분이 초점 성분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ㄴ. 초점은 전제 부분과 운율적으로 구별된다. 일차적으로 그 사이에는 말마디 경계가 있고(박철우 1998: 65), 초점 강세가 동반될 수 있다.

ㄷ. 전제된 부분은 생략될 수 있다.

화제는 전제된 성분들 가운데서 문맥에 맞으면 선택될 수 있으며, 문두성과 ‘-는’ 표지, 비강세 등의 수단에 의해 표시될 수 있고, 아주 당연시될 때는 생략될 수도 있다((7)).

3. 정보구조와 부정의 상호작용

3.1. 부정문에 대한 정보적 시각의 태동 — 선행 연구

임홍빈(1987)에서는 앞서 1절의 (4)~(9)로 다시 가져옴--에 대해 (9ㄱ-ㄷ)의 해석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꾸어 (10ㄱ-ㄷ)의 네 가지 가능성을 더 인정하였다.⁷⁾

(9) 나는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 (4))

ㄱ. 그를 권총으로 쏜 것은 내가 아니다.

ㄴ. 내가 권총으로 쏜 것은 그가 아니다.

ㄷ. 내가 그를 쏜 것은 권총으로가 아니다.

ㄹ. 내가 그에게 권총으로 한 것은 쏘는 것이 아니다.

(10) ㄱ.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은 것은 나였다.

ㄴ. 내가 권총으로 쏘지 않은 것은 그였다.

ㄷ. 내가 그를 쏘지 않은 것은 권총이었다.

ㄹ. 내가 그에게 권총으로 하지 않은 것은 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9ㄱ)에 대해, ‘누군가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라는 긍정 전제가 있는 반면 (10ㄱ)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라는 부정 전제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제시하고 있다.

(11) 초점 성분의 부정과 담화 전제

부정문의 담화 전제가 부정일 때 초점 성분은 부정의 범위에 포함

7) 임홍빈(1987)에서는 다른 예를 사용하고 있지만 논지는 동일하다. 여기서는 임홍빈(1973)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예를 사용하였고, 임홍빈(1998)에서도 이 예를 다시 사용하여 정리하고 있다.

되지 않고 긍정 담화 전제가 주어질 때에만 초점 성분은 부정된다.

임흥빈(1987)은 이와 같이 부정 전제와 관련된 부정문의 해석을 도입하면서 임흥빈(1973)에서 부정은 하나의 성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부정 전제가 있는 문장의 경우에는 부정되는 성분이 둘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임흥빈 1987: 93-4), 임흥빈(1998: 586-7)에 이르러서는 서상규(1984ㄴ)의 관찰을 따라, (12)와 같은 부정문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 ㄱ. 남편이 밥을 안 먹고, 그의 아내가 담배를 피웠다.

ㄴ.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고, 그녀가 그를 칼로 찔렀다. (서상규 1984ㄴ의 예들)

그는 (12ㄱ)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 성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12ㄴ)에 대해서는 “선행절의 각 성분이 후행절의 각 요소들과 대립을 이루고 있고”, “이 대립의 효과가 각 성분들을 하나씩 부정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부정문이 더 다양한 중의성을 가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보구조적 시각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구종남(1990)에서는 임흥빈(1987)의 논의를 수용하여,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3) ㄱ. 민수가 오늘 도시락을 안 먹었다.

① ② ③ ④

ㄴ. 민수가 오늘 도시락을 ~~안~~ 먹지 ~~않~~ 않았다.

① ② ③ ④

단형 부정문 (13ㄱ)은 위의 (10)과 같이 부정 전제를 가지는 해석만 가능할 뿐 긍정 전제를 가지는 해석은 가능하지 않고, (13ㄴ)은 a에 휴

지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 전체를 가지는 (10)과 같은 해석이 가능한 반면 b의 위치에 휴지가 있을 때는 (9)와 같이 긍정 전체를 가지는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는 휴지가 부정문의 중의적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구종남(1990)은 서상규(1984)과 임홍빈(1987)에서 인정된 둘 이상의 구성소가 부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담화 세계에는 둘 이상의 구성소가 부정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14) ㄱ. 엄마는 민수에게 도시락을 주지 않았다.

나. 엄마는 민수에게 도시락을 주지 않고, (엄마는) 철수에게 물통을 주었다.

ㄴ. 엄마가 민수에게 도시락을 주었니?

그는 (14ㄱ)은 (14ㄴ)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다고 보고, 그 질문에 대해 (14ㄱ)과 같이 대답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답의 조합을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추가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고,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셋 이상, 나아가 문장 전체가 부정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의 시각은 임홍빈(1973)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한 가지 맥락만을 상정하여 둘 이상의 구성소가 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실제 쓰임에 대한 실증적 관찰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변적 추정일 뿐이며, 실제로 그런 쓰임이 적다고 해도 그것이 구조적으로 허용되는지 안되는지의 문제는 별도의 것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앞질러 그런 강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객관적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임홍빈(1987)과 구종남(1990)은 부정의 중의성에 대한 정보론적 시각을 배태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부정소의 통사적 작용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초점과 부정의 상호작용

우선, 이 글에서는 부정의 작용역과 정보구조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⁸⁾ 따라서 (4)와 (9-10)에 제시되었던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의 해석 가능성은 부정의 작용역으로만 논의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고(‘~[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 정보구조를 고려한다면 (9-10)보다 훨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부정소가 초점이 되지 않는 경우, 즉 문장이 부정 전제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⁹⁾

(15)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 ㄱ. [초점 내가][전제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 누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는가?)
- ㄴ. [전제 내가][초점 그를][전제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 내가 누구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는가?)
- ㄷ. [전제 내가 그를][초점 권총으로][전제 쏘지 않았다] (← 내가 그를 무엇으로 쏘지 않았는가?)
- ㄹ. [전제 내가 그를 권총으로][초점 쏘지][전제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는가?)
- ㅁ. [초점 내가 그를][전제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 누가 누구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는가?)
- ㅂ. [초점 내가][전제 그를][초점 권총으로][전제 쏘지 않았다] (← 누가 그를 무엇으로 쏘지 않았는가?)
- ㅅ. [초점 내가][전제 그를 권총으로][초점 쏘지][전제 않았다] (← 누가 그를 권총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는가?)
- ㅇ. [전제 내가][초점 그를 권총으로][전제 쏘지 않았다] (← 내가 누구

8) 부정의 작용역에 대해서는 박철우(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9) 여기서도 전제 가운데 화제가 있는 경우까지 다루면 그 중의성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글의 논지에는 지장이 없다고 본다.

를 무엇으로 쓰지 않았는가?)

ㄷ. [전제 내가][초점 그를][전제 권총으로][초점 쓰지][전제 않았다] (← 네
가 누구를 권총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는가?)

ㄸ. [전제 내가 그를][초점 권총으로 쓰지][전제 않았다] (← 네가 그를
(무엇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는가?)

ㄹ.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전제 쓰지 않았다] (← 누가 누구를 무
엇으로 쓰지 않았는가?)

ㄺ. [초점 내가 그를][전제 권총으로][초점 쓰지][전제 않았다] (← 누가
누구를 권총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는가?)

ㄻ. [초점 내가][전제 그를][초점 권총으로 쓰지][전제 않았다] (← 누가
그를 (무엇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는가?)

ㄼ. [전제 내가][초점 그를 권총으로 쓰지][전제 않았다] (← 네가 누구
를 (무엇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는가?)

ㄽ.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쓰지][전제 않았다] (←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는가?)

(15ㄱ-ㄽ)은 임흥빈(1987)에서 제시했던 예들이며, 나머지는 둘 이상의 구성소가 초점을 받는 경우들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도 있겠지만 문맥을 상정하면 결코 불가능한 예들이 아니다. 문맥은 (15)에서 각 예문의 오른쪽에 제시한 방식 이외에도 다른 방식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초점의 성격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옥태권(1984)에서는 Simon Dik et al.(1980)을 원용하여, 초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6) ㄱ. 완성 초점(completive focus)

A: 철수는 무엇을 샀니?

B: 그는 ()을 샀다.

ㄴ. 선택 초점(selective focus)

A: 철수는 빵이나 사과를 샀니?¹⁰⁾

B: 그는 빵을 샀다.

ㄷ. 확대 초점(expanding focus)

A: 철수는 빵을 샀니?

B: 그는 빵과 사과를 샀다.

ㄹ. 제한 초점(restrictive focus)

A: 철수는 빵과 사과와 과자를 샀니?

B: 그는 빵만 샀다.

ㅁ. 대치 초점(replacing focus)

A: 철수는 빵을 샀니?

B: 그는 빵을 사지 않고 사과를 샀다.

ㅂ. 비교 초점(parallel focus)

A: 철수와 영수는 무엇을 샀니?

B: 철수는 그라나다, 영수는 로얄을 샀다.

(16)에 제공된 문맥들은 초점의 문맥을 상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인데 정보의 넓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16ㄱ, ㄴ, ㄹ)이 유용할 것 같다. 우리는 (15)에서 전체적으로 ‘완성 초점’을 염두에 둔 문맥을 상징하였지만, (15ㄱ)을 대상으로 다른 문맥 상징 가능성을 제시하자면 (17)과 같다.

(17) B: [초점 내가][전제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 A: ㄱ. 누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는가? (완성 초점 문맥)

ㄴ. 철수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는가, 네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는가? (선택 초점 문맥)

ㄷ. 철수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는가? (대치 초점 문맥)¹¹⁾

10) 옥태권(1984)의 이러한 적용은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철수는 빵을 샀니, 사과를 샀니?’와 같은 형식으로 수정해서 이해하기로 한다.

11) 위의 (12)에서 활용된 문맥 활용 방식은 ‘대치 초점’을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ㄱ)에 대해 그런 방식으로 문맥을 활용하면 다음 (i)와 같이 될 것이다.

요컨대, 어떤 문장에서 어떤 구성소가 초점을 받게 되든, 초점을 받는 구성소가 하나이든 그것은 그것이 해석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문맥을 다양한 방식으로 상정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발화가 이 세상의 수많은 실제 발화 가운데 절대 사용될 수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예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 문장들의 참-조건적 의미(truth conditional meaning)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만 초점은 그 초점이 주어진 요소 이외의 것들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화용론적 함축을 유발한다. 이러한 정보구조 해석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15□)을 예로 하여 그 의미를 표상해 보자면, 그것은 (18)과 같이 될 것이다.¹²⁾

(18) [초점 내가 그를][전제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ㄱ.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

ㄴ. ~∃x∃y[x가 y를 권총으로 쏘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

(18)의 참-조건적 의미는 (18ㄴ)의 후행항이 되며, 이러한 참 조건적 의미는 (15)의 모든 예에서 (18ㄱ)으로 동일하다. (18ㄴ) 전체는 정보구조에 의한 전제를 아울러 표상한 것으로 정보구조에 의해 추가된 의미를 함께 보여준다. 이때 (18ㄴ)은, (15□)이 부정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언되는 부분(초점)이 긍정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부정 전제가 있어 어색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문맥 제시도 가능함을 보이고자 했을 뿐이다. 둘 이상의 초점이 있을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i)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고 철수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 12) 전제와 단언을 연결사 ‘∧’으로 대등하게 접속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선행항과 후행항 사이에는 인식적 선후관계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 담화표상 이론의 이론적 가정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인식적 선후관계를 담화 세계의 동적인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논의의 목적상 전제와 단언의 차이를 이와 같이 표상하는 것에 대한 양해만으로 족하다. 좀 더 분명하게 표상하자면, 선행항은 ACCOMMODATE라는 화행 연산자의 작용역에 드는 것으로 보고, 후행항은 ASSERT와 같은 화행 연산자의 작용역에 드는 것으로 처리해도 좋을 것이다.

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부정소가 초점이 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그러면 다시 (15)와 동일한 예가 최소한 (19)만큼의 정보구조상의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

(19)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 ㄱ.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ㄴ.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ㄷ. [전제 내가 [초점 그를]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ㄹ. [전제 내가 그를 [초점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ㅁ. [전제 내가 그를 권총으로 [초점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ㅂ.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ㅅ. [전제 [초점 내가] 그를 [초점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ㅇ.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초점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ㅈ. [전제 내가 [초점 그를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ㅊ. [전제 내가 [초점 그를] 권총으로 [초점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ㅋ. [전제 내가 그를 [초점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ㅌ.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않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표. [전제 [초점 내가] 그를 [초점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았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ㅎ.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초점 쏘지]] [초점 았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ㄱ.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았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ㄴ.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았았다] (← 무슨 일이야?)

(19)는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에 속한 모든 예에 대해서 동일한 문맥을 상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성 초점 문맥이 아니고 선택 초점 문맥과 대치 초점 문맥이다--우리는 (19)에서 대치 초점 문맥만 표시하였다. 그 이유는 (19)의 모든 정보구조에서 문장의 직접적인 초점은 ‘았았다’뿐이고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을 예로 하여 세 가지 문맥을 상정하여 보면 (20)과 같다.

(20) B: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초점 았았다]

- ← A: ㄱ.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¹³⁾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기를 어떻게 했는가?¹⁴⁾ (완성 초점 문맥)
- ㄴ.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았았는가? (선택 초점 문맥)
- ㄴ.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대치 초점 문맥)

13) 이와 같은 반응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가 그랬어?’라고 물으면 ‘내가/나는) 안 그랬어’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어쩌면 다른 경우들보다 흔한 반응일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안 그랬어’라는 대답의 질문 문맥으로 ‘내가 그랬어?’ 대신 ‘내가 그랬어?’를 상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닐 것이다.

14) ‘했다’에 대한 긍·부정 여부를 묻는, 즉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에 의문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20ㄱ)은 초점 강세를 받고 있는 ‘내가’가 문장 차원에서의 초점이 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20)에서 부정소 이외의 초점들은 모두 선행 문맥에서 이어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선행 문맥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만을 지적하는 (문장 차원이 아닌) 구성소 차원의 대치 초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우리는 (19)에서 이러한 양상을 전제 속의 초점으로 표상하였다.

이제 이러한 정보구조의 이해에 따라 우리는 부정소에 초점이 있는 부정문의 의미 표상을 제안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19ㄴ)의 예를 선택하였다.

(21)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초점 않았다]

ㄱ.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

ㄴ. $\sim(\exists x \exists y [x \text{가 } y \text{를 권총으로 쏘았다}] \wedge [\text{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

ㄷ. $\exists x \exists y [x \text{가 } y \text{를 권총으로 쏘았다}] \wedge \sim[\text{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

(21ㄴ)은 (19)의 정보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여 ‘누군가가 누군가를 권총으로 쏘았다’는 긍정 전제에 대해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는 단언이 이어지는 경우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표상인데, 이러한 표상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권총으로 쏘았다’는 전제까지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직관에 맞지 않는 표상이 된다. 직관상 (19ㄴ)에서 그러한 긍정 전제는 부정되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21ㄷ)과 같이, 전제 속에 초점이 들어 있는 경우 그 전제는 부정 환경에서 부정되지 않고 유지되는 의미 표상을 (19ㄴ)에 대해 제안한다.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전제 속의 초점이 의미 해석 시에는 문장의 초점 쪽으로 편입된다고 이해해도 된다.

(19ㄱ)은 일견 사정이 달라 보인다. 그것은 전제 부분이 초점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존재 전제가 생기지 않고 그 전제가 모두 부정되는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예는 우

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제’ 개념이 의미론적 존재/사실 전제보다는 그보다 폭이 넓은, 담화상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주어져 있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가리킨다는 점을 상기시켜 줌과 아울러, 부정의 본질에 대한 일깨움을 준다. 긍정은 존재나 사실을 새로 제시할 수 있지만 부정언어는 긍정 개념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ㄱ)은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라는 직전 문맥을 전제로 받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새로운 정보를 덧붙여주는 부정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ㄱ)은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전제하고 그런 전제 속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쏜 것’이 초점으로 들어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22)와 같이 ‘일어난 일은 있지만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22) $\exists \phi \wedge \sim$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다]

(19)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19ㄷ)을 (19ㄱ)과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데, 그러한 구별은 역시 가능하다. (19ㄷ)은 그 전체가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부정소가 다른 긍정문을 전제하여 거기에 덧붙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정문이 그대로 하나의 긍정문이 되어 전체가 초점이 되는 것이다. 부정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사태가 그 자체로 일어난 사건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19ㄷ)의 경우,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는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도 같은 일상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은 것’은 마치 특별한 사건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억지스럽게 느껴진다면, ‘나 오늘 밥을 안 먹었어.’나 ‘나 오늘 세수를 안 했어.’와 같은 문장을 떠올려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3.3.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차이

앞 절에서 우리는 정보구조, 그 중에서도 초점과 부정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주로 장형 부정문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단형 부정문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지에 대해 검토하면서 기존의 부정문에 관한 쟁점들에 대한 해소를 모색하기로 한다.

우선 (15)와 (19)를 통해 제시된 장형 부정문의 다양한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단형 부정문과 관련해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15)와 같이 부정소에 초점이 없는 경우의 단형 부정문의 해석 가능성을 살펴보면, 장형 부정문과 달리 부정소 ‘안’은 전제로 남아 있고 서술어 ‘쏘-’에만 초점이 가는 해석들((15ㄷ, 入, ㅈ, ㅅ, 트, ㅍ, ㅎ, ㄱ)에 대응하는 해석들)은 가능하지 않다.¹⁵⁾

(23) 내가 그를 권총으로 안 쏘았다.

ㄱ. [초점 내가][전제 그를 권총으로 안 쏘았다] (← 누가 그를 권총으로 안 쏘았는가?)

ㄴ. [전제 내가][초점 그를][전제 권총으로 안 쏘았다] (← 네가 누구를 권총으로 안 쏘았는가?)

ㄷ. [전제 내가 그를][초점 권총으로][전제 안 쏘았다] (← 내가 그를 무엇으로 안 쏘았는가?)

ㄹ. [초점 내가 그를][전제 권총으로 안 쏘았다] (← 누가 누구를 권총으로 안 쏘았는가?)

15) 구종남(1990: 407)은 하나의 성분만 초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3ㄷ-入)은 인정하지 않고 (23ㄱ-ㄷ)만 인정하면서도 ‘민수가 오늘 도시락을 안 먹었다’에 대해 (i)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일 것이다.

(i) 민수가 오늘 도시락에 대해 안 한 것은 먹은 것이다.

그것은 (23)에 대해 (ii)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데, 그것은 부정 전제만 가능하다는 그의 입장과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ii)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안][초점 쏘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어떻게 안 했는가?)

- ㄱ. [초점 내가][전제 그를][초점 권총으로][전제 안 쏘았다] (← 누가 그를 무엇으로 안 쏘았는가?)
- ㄴ. [전제 내가][초점 그를 권총으로][전제 안 쏘았다] (← 네가 누구를 무엇으로 안 쏘았는가?)
- ㄷ.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전제 안 쏘았다] (←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안 쏘았는가?)

이로부터 우리는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차이가 정보구조의 측면에서 부정소와 서술어를 분리 가능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형 부정문은 그 발생 원인이 단형 부정문으로부터 서술어를 정보적으로 분리하기 위함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안 쏘다’는 정보적으로 하나의 단위일 수밖에 없는데 ‘쏘지 아니하였다’가 되면 두 개의 단위로 분리될 수 있고 그로부터 ‘쏘지’와 ‘아니하였다’가 서로 다른 정보적 가치(전제, 초점 등)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정소에 초점이 있는 (19)와 관련하여 단형 부정문의 해석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 그것은 (24)와 같다.

(24) 내가 그를 권총으로 안 쏘았다.

- ㄱ.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초점 안 쏘았다] (← 네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ㄴ.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초점 안 쏘았다] (← 네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ㄷ. [전제 내가 [초점 그를] 권총으로][초점 안 쏘았다] (← 네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ㄹ. [전제 내가 그를 [초점 권총으로]][초점 안 쏘았다] (← 네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ㅁ. [전제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초점 안 쏘았다] (← 네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ㄴ. [전제 [초점 내가] 그를 [초점 권총으로]][초점 안 쏘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ㄷ. [전제 내가 [초점 그를 권총으로]][초점 안 쏘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 ㅇ. [초점 내가 그를 권총으로 안 쏘았다] (← 무슨 일이야?)

이 경우 위의 (23)에 대한 설명과 같은 논리라면, ‘쏘지’가 전제에 속하고 ‘않았다’에 초점이 오는 예들은 그 둘이 ‘안 쏘았다’로 통합되면서 그것을 ‘[초점 안][전제 쏘았다]’로 나누는 것이 어려워져 불가능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4)에서는 그런 구조를 가진 예들이 여전히 자연스럽고, 다만 그럴 때 부정의 작용역이 문장 전체에 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초점 안][초점 쏘았다]’와 같은 예들이 가능하지 않다.¹⁶⁾ 이 관찰은 우리가 위에서 얻은 결론을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것은 부정소가 전제에 속하든 초점에 속하든 부정소 뒤에 초점이 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결론을 조금 수정하여 장형 부정문이 발생한 것은 단형의 경우 부정소 뒤에 오는 서술어를 부정소 앞으로 보냄으로써 초점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함이라는 새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4. 기존 논점의 해소

이 절에서는 두 가지 기존 논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양화사나 부사를 가진 단형 부정문이 중의적으로 이해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형 부정문에서의 ‘-지’와 ‘하다’의 통사적 위상에 대한 것이다. 상세히 논의하기보다는 이상의 논의에 의해 밝혀진 점을 통해 이 두 현상을 따로 조명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먼저 단형 부정문의 중의성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3.2절에서

16) (19□, ○, △, ◇)과 대비시켜 보기 바란다.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범위만이 고정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술어에 의해 선택되는 필수 논항들과 성분 수식어만을 고려한 경우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중속절을 포함한) 일부 부사어들은 절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고 서술어만을 수식할 수도 있어 구조적 중의성을 일으킬 수 있다.

(25) ㄱ. 돌이가 순이를 안 좋아한다.

ㄴ. 돌이가 순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26) ㄱ. 그가 갑자기 안 돌아왔다.

ㄴ. 그가 갑자기 돌아오지 않았다.

즉 필수 논항만 있는 (25ㄱ)의 경우, ‘안’에 의해 전체 문장이 부정된다고 본 것이며 작용역의 측면에서 필수 논항 없이 ‘좋아한다’만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런 점은 (25ㄴ)과 같은 장형 부정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필수 논항만 관여될 때 작용역의 측면에서는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작용역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26)에서처럼, 성분부사 ‘갑자기’와 같은 부가어가 들어있는 문장에서는 (27)과 같은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

(27) ㄱ. 갑자기~[돌아왔(그)]

ㄴ. ~갑자기[돌아왔(그)]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 양화사의 수식을 받는 (2)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26ㄱ)과 같은 단형 부정문에서는 (27ㄱ)과 같이 ‘갑자기’가 ‘안 돌아오-’를 수식하는 단의적 해석만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고, (26ㄴ)과 같은 장형 부정문에서는 ‘갑자기’가 ‘(돌아오지) 않-’을 수식하는 경우와 ‘돌아오-’만을 수식하는 경우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뉜다.

이에 대해 우리가 설명해야 할 문제는, (26ㄱ)이 (27ㄴ)의 해석을 가질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야 한다. (26ㄴ)이 (27ㄱ, ㄴ)의 해석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과 (26ㄱ)이 (27ㄱ)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26ㄱ)이 (27ㄴ)의 해석을 가질 수 있느냐에서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는 ‘안’이 자기보다 바깥에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갑자기’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진다는 것이 어색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한다. 즉 (26ㄱ)은 본래의 부정의 작용역에 따라 해석될 때는 다음 (28ㄱ)과 같은 의미 표상을 가지며 그것의 상응하는 정보구조는 (28ㄴ)일 것이다.

(28) 그가 갑자기 안 돌아왔다.

ㄱ. $\exists P[\text{갑자기}(P(\text{그}))] \wedge \text{갑자기} \sim [(\text{돌아왔}(\text{그}))]$

ㄴ. $[\text{전제 } \text{그가 갑자기}][\text{초점 } \text{안 돌아왔다}]$

(P: 서술어 변항)

즉 이 경우에는 ‘그가 갑자기 어떻게 했다’가 전제되어 있고 단언 부분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서술어 자리를 채운 정보가 ‘안 돌아왔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갑자기’는 부정의 작용역 바깥에 있다. 즉 우리의 일반화에 부합하고 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27ㄴ)의 해석은 (29ㄱ)과 같은 의미 표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떤 정보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일까?

(29) ㄱ. $\text{돌아왔}(\text{그}) \wedge \sim [\text{갑자기}(\text{돌아왔}(\text{그}))]$

ㄱ'. $[[\exists P(P(\text{그})) \wedge \text{갑자기}(P(\text{그}))] \wedge \sim [\text{갑자기}(\text{돌아왔}(\text{그}))]]$

ㄱ". $\exists P(P(\text{그})) \wedge \sim [\text{갑자기}(\text{돌아왔}(\text{그}))]$

ㄴ. $[\text{전제 } \text{그가 } [\text{초점 } \text{갑자기}]] [\text{초점 } \text{안 돌아왔다}]$

문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29ㄴ)과 같은 구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29ㄴ)은 (29ㄱ')과 같이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것

을 갑자기 했는데, 그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전제 부분에서 초점을 받는 '갑자기'는 '돌아왔'과의 수식 관계에 의한 긴밀성 때문에 문장의 단언이 되는 초점 영역으로 옮겨져 부정의 작용역 안쪽으로 편입되어 (29ㄱ")과 같은 표상이 얻어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9ㄱ")이 (29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앞서 (24)에서 그런 전제가 있는 문맥을 상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부터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즉 '그가 갑자기 돌아왔는가?'와 같은 문맥이 상정된다면 '갑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29ㄴ)과 같은 정보구조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때 '안 돌아왔다'는 그것이 한 단위로 '돌아왔는가'에 대한 대치 초점을 받은 것인데, 실제로 그 안에서 '돌아왔다'는 전제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돌아왔다'를 '[초점 안][전제 돌아왔다]'로 나누는 것보다는 '돌아왔다'가 '갑자기'를 초점 속으로 견인한다는 설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용하리라고 본다.

다음으로 '-지'와 '하다'의 통사적 위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면, 단형 부정문의 형식이 있는데 굳이 '-지'와 '하다'를 이용한 잉여적 형식의 장형 부정문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15ㄷ)과 (19ㄱ)에서(아래에 (30)으로 다시 제시함) 우리는 장형 부정문의 경우 '쏘-'에만 초점이 주어지는 구조가 가능함을 보인 반면, 단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23)과 (24)에서 그와 같은 구조를 상정하기가 어려움을 지적했었다.

(30) ㄱ. [전제 내가 그를 권총으로][초점 쏘지][전제 았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어떻게 하지 았았는가?)

ㄴ. [전제 내가 그를 권총으로 [초점 쏘지][초점 았았다] (← 내가 그를 권총으로 쏘았는가?)

즉, '하다'를 부정함으로써 그 앞에 오는 '-지' 절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장형 부정문에서는 '쏘-'를 분리시켜 그것에 초점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안’이 바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안’ + 서술어” 구성으로부터 서술어를 따로 분리하여 초점을 부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지’가 명사화소로서 부정의 대상이 되는 긍정문을 명사절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형 부정문보다 긍정문을 온전한 형식으로 전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됨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추론에 의한 것이지만, 이로부터 ‘-지’는 명사화소, ‘하다’는 대동사로 판정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된다.

임흥빈(1973)은 ‘-지’를 종결어미, ‘하다’를 대문동사(代文動詞)라 하고, 구종남(1990)에서는 ‘-지’를 명사화소와 같은 추상적 기능의 단위, ‘하다’를 일종의 본동사로 보아 ‘동사를 비롯한 더 많은 요소를 논항으로 가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단위로 보았는바, 우리는 ‘-지’를 명사화소로, ‘하다’를 경동사/기능동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본다. ‘-지’를 명사화소로 보는 데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대개는 ‘-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것이며, 본질적으로 ‘-지’를 명사화소와 같은 보문소 이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하다’와 관련하여 임흥빈(1973)이나 구종남(1990)에서는 긍정문의 서술어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을 더 아우르는 것으로 보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하다’는 구나 절 형식을 대신하는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그리고 대신한다는 것은 다른 절이나 문장의 동사를 대신하는 것이라야 하는데, 장형 부정문에서는 ‘아니하다’ 바로 앞에 그 동사의 명사형이 출현하고 있고 그것이 그 논항들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 의미는 약하고 서술어의 형식만을 유지해 주는 ‘하다’를 경동사로 활용함으로써, 서술어를 하나의 성분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정보구조상의 필요를 채우려 한 결과가 장형 부정문인 것이다.¹⁷⁾

17)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지 아니 하다’의 ‘하다’를 기능동사로 볼 수 있다면, 김양진(2007)의 주장과 같이 ‘아니(안)하다’ 전체를 기능동사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생각(을) 아니(안)하다’와 같은 유의 구성들이 가능하다는 데서부터 착안된 것이다. 기능동사가 부정의 의미를 동반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다만 무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소위 ‘부정의 작용역’과 관련된 중의성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부정문은 단형이든 장형이든 매우 다중적인 해석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었다.

절 이상의 단위를 수식할 수도 있고 서술어 성분만을 수식할 수도 있는 부사어를 가진 문장이나 양화사를 가진 문장이 부정될 때는 작용역의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구조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장들의 중의성이 실제로 해소되는 것은 운율 등 별도의 요소가 작용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율적 요소와 관련되는 다의적 해석은 그러한 수식어들이 없을 때도 다중적인 해석의 차이를 유발한다. 그것은 특정 성분에 초점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에 그 성분을 제외한 부분은 전제됨으로 해서, 마치 그 성분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해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장에 포함된 성분만큼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모든 해석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부정의 작용역에 의한 중의성을 운율과 경계 등과 관련되는 정보구조에 의한 다중적 함축과 구별하고, 정보구조의 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다중적 함축의 발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표상해 보였다.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해석 가능성이 실제 담화상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그러한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었다.

이와 같은 정보구조를 활용한 설명은 장형 부정문과 단형 부정문의 해석 차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설명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고, 부정소와, 양화사 또는 부사어의 작용역 차이에 의한 구조적 중의성과 정보구조에 의한 일종의 고정 함축을 명확히 구별하여

엇이 기능동사라고 하는 설명이 아직 형태·통사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데까지 이른 것은 아니므로 통사적으로 실재하는 어휘범주와 기능범주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이론적인 천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제를 제공해 주었다. 아울러, 장형 부정문의 ‘-지’와 ‘하다’의 기능에 대한 이해에도 간접적인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초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담화 맥락의 유형을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실제 담화상에 발생한 다양한 발화 유형을 통해 우리의 논의를 검증하는 것이 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곽혜영·이미선(2010), 한국어 전칭양화사-부정어 구문의 중의성 해석에 나타나는 작용역 선호 양상, 《언어》 35-3, 한국언어학회, 531-542.
- 구종남(1990), 부정문의 통사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28집, 403-423.
-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권재일 외 4인(1997), 통사 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관성 연구, 《언어학》 제20호, 59-112.
- 김동식(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452-466.
- 김양진(2007), 부정의 기능동사 ‘않-/안하-’, ‘못하-’의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학》 제35집, 195-217.
- 박갑용(2005), 한국어 부정문의 구조, 《부정과 부정어》(김영화 외), 한국문화사, 119-161.
- 박정규(1991), 국어 부정문의 의미 해석, 《국제어문》 12·13합집, 117-147.
- 박철우(1998),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철우(2013), 부정의 작용역에 대하여, 《한국어학》 제61집, 145-171.
- 송석중(1981), 한국말의 부정의 범위, 《한글》 173·174, 327-352.
- 서상규(1984Ⅰ),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문의 해석, 《한글》 제186호, 73-114.
- 서상규(1984Ⅱ), 국어 부정문의 의미해석 원리, 《말》 제9집, 41-79.
- 서정수(2006), 《국어문법》, 한세본.
- 신선경(1995), 부정 해석과 부정소 상승에 관하여, 《한일어학논총: 남학 이종철 선생 화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149-170.
- 옥태권(1984), 국어의 축점화 현상, 《문하생의 글로 엮어진 두메 박지홍 선생 회

- 갑기념 논문집», 박지홍 교수 회갑기념출판물 간행위원회 編, 173-191.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이은섭(1996), 현대국어 부정문의 통사 구조, 《국어연구》 140, 국어연구회.
- 이한정(2009), Contrastive Focus and Variable Case Marking: A Comparison between Subjects and Objects, 《언어와 정보》 제13권 2호, 1-27.
- 임동훈(2007), 한국어 조사 ‘만’과 ‘도’의 의미론, 《朝鮮學(報)》 125, 1-20.
- 임동훈(2012), ‘은/는’과 종형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217-271.
- 임홍빈(1973), 부정의 양상, 《논문집: 인문사회과학》 5, 서울대 교양과정부.
- 임홍빈(1978), 부정법 논의와 국어의 현실, 《국어학》 6, 국어학회.
- 임홍빈(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87 가을). 국어연구소.
- 임홍빈(1998), 부정법,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pp. 551-620.
- 장경기(2010), There-구문의 존재성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36, 259-281.
- 한정환(2002), 내포문에서의 화제화 제약과 정보구조, 《언어》 27-3, 535-556.
- Dik, S. et al.(1980), On the typology of focus phenomena, in S. Dik et al, (eds.), *Perspectives on functional grammar*,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41-73.
- Jackendoff, R.(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achusettes, The MIT Press.
- Neeleman, A. and R.Vermeulen(2011), Interpreting Focus under Negation, draft. (<http://www.gist.ugent.be/file/235>)
- Yatabe, Shuichi(1996), Negation and focusing in the grammar of Japanese, in Takao Gunji, ed., *Studies on the Universality of Constraint-Based Phrase Structure Grammar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Research Program, Joint Research, Project No.06044133,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Japan), Osaka University, 217-225.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031-467-0862

E-mail: cwpa@anyang.ac.kr

투고 일자: 2013.

심사 일자: 2013.

게재 확정 일자: 2013.

Reconsidering the Problem of Ambiguity in Negative
Sentences in Korean –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cope
and the Information Structure

[Park, Chul-woo]

부정문의 중의성 문제 재고-작용역과 정보구조의 상호작용
[박철우]

This thesis aims to explain the phenomena that each negative sentence in Korean has multiple interpretations, systematically. In the former debates, the scope difference between the quantifier and the negative item in negative sentences was considered as a source of the ambiguity, but some argued that this ambiguity goes for only so-called long-form negation, and the other insisted that it goes for both long- and short-form negations. Furthermore, there has been an observation that negative sentences in Korean can have interpretations as many as the number of constituents in the sentence if the constituent goes with a focal stress.

We firstly point out that a negative item has a scope not on a constituent, but a proposition itself. So all the multiple interpretations can not be treated simply as scope negations. Therefore we assume a frame of information structure(focus-presupposition articulation) and, to prove that this perspective can also be applied to negative sentences, we present a near full set of probable interpretations of a long-form negative sentence and then do the same to a short-form negative sentence. As the result of these analyses, we could find the genuine difference between two different forms of negation.

Nevertheless, it doesn't mean that the scopes of negation and other scope-having items make no meaning separation. But, the point is that

all the multiple interpretations can be disambiguated on the ground of informational mechanism.

Key words: negative sentence, negation, ambiguity, scope, information structure, focus, presupposition, long-form negation, short-form negation.